

The Best Steel For The Better Company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정신으로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TRANSFORMING FUTURE
[주] 와안베스틸
경남 창원군 창녕읍 하리 25-1
Tel: 055-259-2000 Fax: 055-259-2020
<http://www.finebesteel.com>



TRANSFORMING FUTURE
[주] 와안엔티내셔널
부산시 사상구 광장로 10 화안빌딩 15층
Tel: 051-796-7000 Fax: 051-796-7069
<http://www.firea.com>



TRANSFORMING FUTURE
동일스틸렉스리우
부산시 사상구 학정동 716-1
Tel: 051-322-1177 Fax: 051-326-5655
<http://www.dongilsteel.com>

Vol. **87**
2026. 02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컬링협회 신영국 회장

푸른 바다, 큰 꿈
건국고등학교 컬링부

Sports is Busan
2026년도 부산광역시 스키대회



CONTENTS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6년 2월 13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87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문찬식, 공제원, 김성무,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051-500-7900
기획·제작 (주)디자인제로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6. 02 Vol. 87



영성의 부산체육

- 04 부산체육人
부산광역시컬링협회 신영국 회장
- 08 금빛 훈련일지
부산광역시체육회,
국가대표 이익진 선수
- 12 부산체육을 잇다
기장군체육회
- 16 푸른 바다, 큰 꿈
건국고등학교 컬링부



정상을 향한 질주

- 20 Sports is Busan
2026년도 부산광역시 스키대회
- 24 스포츠&테크놀로지
전자 무대 위의 격전
게임의 또 다른 이름, e스포츠
- 28 스포츠&웰니스
겨울 러닝
- 30 부산체육 DNA
광역단체 최초 '체육국 신설'
생활체육 천국도시로의
약진 시작하는 부산



최고의 체육문화

- 34 스포츠 기고
성공로 증명한 부산체육,
시민과 함께 여는 2026 새로운 도약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 38 종목 소개
컬링
- 42 스포츠&컬처
영화 <독수리 에디>



Go! 우리 함께

- 44 BSC 뉴스
- 2026년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식 개최
- 부산광역시체육회 김운석 부회장,
부산산업대상 선정
- 부산광역시골프협회 최광식 회장,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연임
- 부산광역시 체육국 인사 발령
- 48 회원단체 소식
- 52 센터 info
-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 56 부산체육 퀴즈

부산광역시컬링협회 신영국 회장의 이력은 특별하다.

레슬링 선수로 활약 후 지도자의 길을 걷다가, 2000년부터 컬링과의 인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9년 넘는 교직 생활 후 컬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를 만났다.

컬링을 만난 후 행복한 인생 2막

부산광역시컬링협회 신영국 회장

레슬링으로 시작한 체육 인생

부산광역시컬링협회 신영국 회장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부산 컬링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그는 39년 넘는 교직 경험을 살려 현재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신 회장은 학창 시절 유망한 레슬링 선수였고, 1977년에는 국가 대표로 선발되어 기량을 펼쳤다.

> “1982년 부산 남여중(현재 영선중)에 교사로서 첫걸음을 내디뎠고, 3년 뒤 부산 대저고에 부임해 학생들에게 레슬링을 지도했습니다. 대저고 레슬링부 선수들은 다들 너무나 성실했어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등 여러 대회에 출전한 후 국가대표 지도자로도 활동한 박치호 감독이 대저고 출신입니다.”

운명처럼 성큼 다가온 컬링

1990년대 후반 텔레비전에 방영된 ‘스타TV’ 채널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이 소개되었다. 1998년 신 회장은 우연히 해당 채널을 시청하다 컬링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컬링이 어떤 스포츠인지 모르는 사람의 거의 없지만, 당시 컬링은 우리나라에 상

당히 생소한 종목이었다.

화강암 스톤이 얼음 위를 이동해 다른 스톤을 쳐내는 컬링은 그에게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고, 훌륭한 국내 선수들을 양성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했다.

> “저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모아 부산광역시컬링협회 이사진을 꾸리고 2000년 2월에 정식 등록을 진행하려 했어요. 하지만 여러 난관에 부딪히며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회 정식 등록이 주춤하던 그때, 그는 컬링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않고 재직 중이던 대저고등학교에 컬링부를 만들었다. 부산에 컬링장이 없다 보니 선수들은 대구까지 가서 연습해야 했다. 하지만 대구 선수들도 그곳에서 연습해야 했기 때문에 부산 선수들은 야간에 훈련하는 수밖에 없었다. 부족한 여건이었지만 그와 선수들은 한마음으로 열심히 훈련했고, 투자를 모아 2001년 제82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국동계체육대회는 고등부 컬링 종목이 정식으로 채택된 해였는데, 이 대회에서 대저고 선수들은 무려 금메달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신 회장은 아직도 그 순간이 생생하다.

Busan Curling



“훈련 장소도 멀리 있고, 운영 경비도 부족해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불평 없이 묵묵히 따라와 주었고,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리기도 한 듯 경기 결과가 좋아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국가대표 선수에서 감독으로

신 회장은 컬링 고등부뿐만 아니라 일반부 선수 지도도 병행했다. 2008년 컬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그가 지도한 일반부 선수들이 부산 컬링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선발되었다고. 컬링과 연을 맺기 전인 1977년 레슬링 국가대표로서 태릉선수촌에 왔었던 그는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나 컬링 국가대표 감독으로 입촌하게 되니 만감이 교차했다.

“청춘의 온 열정을 쏟아 레슬링 국가대표로서 선수촌에 왔을 때도 물론 좋았지만, 컬링 국가대표 감독으로 다시 왔을 때는 좋기도 하면서 울컥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들더군요. 선수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컬링을 전혀 모르던 제가 연구하고 개척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신 회장에게 컬링은 인생 제2막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었다.

정직하고 섬세한 매력의 컬링

오랜 기간 레슬링을 했던 신 회장이 느끼는 컬링의 매력은 무엇일까.

“컬링은 아주 정직하면서도 섬세한 스포츠입니다. 스톤을 정확히 목표 지점에 놓기 위해서는 정확한 판단과 전략적 사고, 팀워크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집중력, 팀워크가 한 박자가 되어야 하는 흥미로운 운동이죠. 또한 ‘하우스’라고 불리는 원형 안에 스톤을 최대한 많이 놓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점수를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때문에 심판 판정이 잘못되어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레슬링을 오래 했던 신 회장은 컬링 하우스가 레슬링장과 비슷한 느낌이 든다며 다르게 보이는 종목이지만 통하는 점이 있어 인연이 되었던 것 같다고 한다.

컬링을 처음 배우는 사람은 자세, 스톤 위치 계산 등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쉽다. 신 회장은 컬링 초심자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배우려면 초반부에 기술을 습득하려 너무 애쓰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두고 멋지게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운동하다 보면 스스로 균형을 잡아가게 되고, 이것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기술을 익힐 수 있다고 한다. 이후 중급 단계로 넘어가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스포츠이기에 이를 견딜 수 있는 기초 체력 및 집중력 훈련 병행을 추천했다.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향한 투지

부산광역시컬링협회에는 현재 신영국 회장을 비롯하여 부회장, 감사 등 20명의 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종선 부회장님, 이규현 전무이사님 등 여러 임원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겁게 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협회에 등록된 선수는 60명, 클럽 선수는 40명 정도입니다. 지난해에는 부산 건국중 컬링부가 부활하는 등 협회 발전에 고무적인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협회 관계자들은 내년 해운대에 문을 여는 ‘부산 반다비 체육센터’에 거는 기대가 크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체육 시설로 센터 내에 컬링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협회 임원과 선수들은 누구보다 부산 컬링장 완공 소식을 기다리던 상황이라, 반다비 체육센터가 만들어지면 누구보다 반갑지 않을까 싶습니다. 컬링장이 완공되면 유아 컬링 교실을 만들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클럽을 운영할 계획도 있는데, 공부에 지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컬링을 지도해 건전한 사고 형성과 신체 기능 강화에 힘을 계획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체육』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물었다.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체육인으로 지내며 제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상당히 많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저 자신을 믿고 갔습니다. 독자 분들 중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다면, 자신을 믿고 묵묵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 회장은 40여 년간의 교직 생활을 바탕으로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학생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잘 풀리게 된다는 조언을 전했다. 또한 2월 25일부터 개최되는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부산 컬링 선수들과 협회에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며 컬링에 대한 문의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라는 다정한 인사를 남겼다.

2000	부산광역시컬링협회 설립
2001	제82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금메달(전국 3위)
2004~2006	태백곰기 전국컬링대회 금메달 3연패
2008	일반부 국가대표 선발
2021	대한컬링연맹-협회-석파학원 컬링인재 육성 업무협약





불굴의 스키어 극기는 나의 힘!

부산광역시체육회,
국가대표 이의진 선수

설상의 마라톤이라 불리는 크로스컨트리. 영하의 추위 속,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끝없는 오르막과 내리막을 달린다. 이토록 고독하고 치열한 길을 묵묵히 달려온,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속 이의진 선수는 지난 12월 극동컵에서 압도적 기량을 선보이며 올림픽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키어로서 세계를 정조준하고 있는, 부산 유일의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자인 그를 만나보았다.

평창의 작은 꼬마가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이의진 선수는 초등학교 시절 강원도 평창군으로 이사를 가 그곳에서 성장했다. 초등학교 5학년, 만 11세의 꼬마가 국가대표 스키선수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 > “11살, 그러니까 평창으로 이사간 지 1년 뒤인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스키를 탔어요. 학창 시절에는 육상과 크로스컨트리를 병행하면서 기초 체력과 주행 감각을 쌓아오다가 2017년에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발탁되어 극동컵에 출전했어요. 그게 벌써 8년 전이라니,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속이 된 건 2022년이었는데, 국가대표임과 동시에 부산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컨트리에는 다양한 세부종목이 있다. 그중 이의진 선수가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

- > “크로스컨트리는 인터벌 스타트, 매스 스타트, 스키애슬론 등의 세부 종목이 있어요. 선수들은 그때그때의 컨디션과 시즌 흐름에 따라 자신 있는 종목이 달라져요. 저 같은 경우, 이번 시즌에는 저만의 리듬으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기록을 향상시키는 데서 강점을 보이고 있어서 인터벌 10km프리(인터벌 스타트)종목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아요.”

어느덧 14년째 스키를 타고 있는 이의진 선수가 생각하는 크로스컨트리의 매력은 ‘극기’에 있다.





> “크로스컨트리리는 추운 설상에서 전신을 사용하는 종목이라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어요. 그만큼 훈련과 경기 과정에서 한계에 자주 부딪히는 종목이에요. 고등학생 때는 비슷한 류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거리 육상으로 종목을 잠시 변경한 적도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크로스컨트리 종목으로 되돌아왔어요. 정형화된 트랙을 달리는 것보다는 자연이 만든, 매번 달리는 코스를 마주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크로스컨트리의 매력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노력하는 자를 이기는 건 즐기는 자라고 했던가, 극기를 즐기는 이의진 선수는 그에 걸맞은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극동컵에서 국내 선수 중 1위를 차지했다.

> “어떤 대회든 입상은 즐거운 일이지만 특히 이번 대회는 기분이 좋아요. 스키는 계절 종목이라 비시즌 기간에는 체력훈련과 롤러스키 훈련을 주로 해요. 그래서 첫 대회에서 지난 1년 노력의 결실을 처음 마주해요. 올해 첫 국제대회,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열린 대회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시즌을 시작할 수 있어 더없이 기뻐요. 컨디션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경기 중에 집중력을 유지하려고 마인드 컨트롤했던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항상 저를 믿어주시는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지원과 감독님의 지도가 큰 도움이 됐어요. 아울러 대회 때마다 현장을 찾아주는 가족들은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훈련해온 친구들과 동료들의 응원도 큰 힘이 됐어요. 힘든 훈련 과정을 함께 버티고 서로 격려를 주고받는 사람들이라 더욱 고맙습니다.”

스키어로서의 후반전 돌입, 앞으로의 포부

인생의 절반 이상을 눈 위에서 보낸 이의진 선수, 그간 치러온 수많은 대회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이 있을까?

> “지난 시즌 일본에서 열린 극동컵에서 세계 선수들과 경쟁하며 처음 1위를 차지했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생각에 눈물을 보일 뻔했어요. 수많은 대회가 있지만 역시 국제 무대에서 우승하는 경험은 더욱 소중한 법이니까요. 그때 기억 덕분에 이후 경기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었으니, 선수 생활 중 큰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며 기른,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 덕분에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는 이의진 선수이지만, 눈이 내리지 않는 도시 부산에서 동계 스포츠 종목을 대표하며 많은 어려움과 부담감을 안고 있다.

> “부산으로 오면서 이미 걱정했던 부분인데, 지역 특성상 설상 종목을 훈련할 여건과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특히 크로스컨트리 종목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고 훈련 가능한 경기장이 제한적이라 더욱 어려움이 많아요. 실전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조건 속에서도 부산의 동계 스포츠 선수들이 꾸준히 도전하고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껴요. 그만큼 부산 선수들은 성실하고 끈기가 강한 것 같아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며 스스로를 갈고 닦은 이의진 선수. 올해는 그의 인생 가장 큰 무대인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 “우선,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무대인 올림픽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할 수 있어 영광이에요. 국가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 건 많은 분의 지원과 팀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선수들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는 순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선수들 개개인이 본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그래서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산과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후회 없는 경기 펼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열심히 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의진 선수는 자신을 응원하는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 “이번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중에 유일한 ‘부산 시민’인 만큼 더 큰 책임감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눈 내리지 않는 도시 부산에서도 동계올림픽의 영웅이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 유망한 선수들과 후배들도 부산을 연고로 삼아 더욱 활발한 동계 스포츠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거예요. 부산의 동계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왔다!

생활체육이 꽃피는 곳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체육회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생활체육의 성지, 기장!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를 펼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여러 체육시설이 신설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뒤에는 기장군체육회의 밤낮없는 노력이 숨겨져 있다.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력 충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장군체육회를 찾아가 보았다.

Q. 기장군체육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장군체육회는 기장군 내 각종 체육행사 주최 및 주관, 생활체육 교실 운영, 동호인들의 체육대회 참가 독려 등 다양한 활동으로 기장군 체육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 삶의 질 향상, 체력 증진, 체육문화 창달 등을 지향합니다.

Q. 기장군체육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월드컵빌리지 축구장, 드림볼파크 야구장 등이 있습니다. 언급한 두 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시설입니다. 월드컵빌리지 축구장에서는 매년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관내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드림볼파크 야구장에서는 U-15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두 시설 모두 프로팀 전지훈련장으로도 활용됩니다. 이 외에 정관아쿠아드림파크, 군민체육공원, 철마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Q. 기장군체육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주요 업무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동호회 지원, 지역 체육행사 개최, 엘리트 선수 발굴과 육성 등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참여 계층에 맞는 체육활동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생활체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원, 돌봄센터, 유치원 등 생활체육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합니다. 기장군체육회는 무엇보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Q. 다양한 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행사를 소개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미역·다시마배 전국 배구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는 2017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0회를 맞았습니다. 대회 접수 시작 10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사랑을 받는 대회입니다. 3월 초순만 되면 전국의 테니스 동호인들을 기장으로 모이게 하는 기장군수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도 있습니다. 봄, 가을마다 진행되는 기장군민걷기대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장의 벚꽃길과 단풍길

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대회로, 군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Q. 기장군체육회 소속 회원단체와 활약이 궁금합니다.

축구, 배드민턴, 탁구, 육상, 태권도 등 많은 회원단체가 있으며, 이들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을 보태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참여자 맞춤형 수업, 정기 교류전, 지역 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덕분에 군민들의 자발적인 스포츠 행사 참여와 일상 속 스포츠 문화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스포츠로 이웃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장군체육회와 군민들에게 회원단체란 단순한 종

목 운영을 넘어, 군민이 주체가 되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체육문화 제공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올해 기장군체육회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군민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맞춤형 체육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초보자부터 전문선수까지. 열외되는 인원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스포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열띤 참여입니다. 목표를 향해 군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나아가는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Q. 생활체육을 즐기는 군민들과 회원단체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생활체육을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회원단체 여러분. 여러분이 있기에 기장군체육회는 힘내어 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활체육을 즐기며 흘리는 땀과 열정 덕분에 우리 지역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장군체육회는 앞으로도 지역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인터뷰

interview
mini

최상철 회장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체육회 회장 최상철입니다. 기장군체육회에 몸담기 전부터 축구협회장을 역임하는 등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중 축구에 대한 애정이 깊어 아직도 조기축구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주변에 축구 경기장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환호성이 들리거나 하면 괜히 저 또한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체육회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그중 몇 가지 인상적인 일을 꼽자면,

작년에 부산에서 전국체전이 열린 일이나, 올해 갈매기 씨름단이 기장에서 창단된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 임기 동안 여러 성과를 선보일 수 있어 무척 보람칩니다.

체육회를 운영하며, 기장을 생활체육인의 천국으로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의 노력이 중요하고, 기장군과 군 체육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해주는 임직원 여러분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임직원 여러분께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본인 또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체육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니만큼, 더더욱 건강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빙판 없는 도시
부산에서 메달을 빛다

건국고등학교 컬링부

차가운 빙판 위에서 스톤이 미끄러지는 소리, “압!” 하는 외침과 함께 빙판을 닦아내는 선수들의 모습. 동계 스포츠의 불모지로 여겨지던 부산에서 컬링이라는 새로운 씨앗이 싹트고 있다. 그 중심에 건국고등학교 컬링부가 있다.

자갈밭에서 피어난 컬링의 꿈

2018년, 건국고등학교 컬링부는 특별한 사연으로 창단됐다. 레슬링부를 부활시키며 새로운 종목을 고민하던 학교는 여러 후보 중 컬링을 선택했다. 부산광역시 컬링협회 전무이사이자 건국고등학교 컬링 지도자를 맡고 있는 이규현 지도자는 2018년 팀 창단부터 함께했다.

“건국고등학교 컬링부는 7년이라는 짧은 역사지만, 컬링 전용 경기장이 없는 부산에서 2년 연속 전국동계체육대회 동메달을 따는 등 매년 성장하고 있는 팀입니다.”

지난 시간 속 팀의 성장 뒤에는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다. 컬링부의 녹록지 않은 훈련 환경 때문이다. 평소에는 학교 운동부실에서 체력훈련을 하고, 침단 장비가 갖춰진 곳에서 전술훈련을 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빙상 훈련은 주 1~2회, 그것도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 훈련이 끝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만 가능하다.

“축구선수로 비유하자면 천연잔디에서 훈련하지 못해 자갈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컬링은 머리카락 한 올이 스치는 힘에도 스톤의 방향이 바뀌는 정교한 스포츠다. 하지만 빙상장의 열음은 스케이트 날 때문에 상처가 많다. 아이스 밸런스도 맞지 않아 스톤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이런 환경 때문에 전지훈련은 필수다. 따라서 건국고등학교 컬링팀은 지난 1월 초에 강릉 전지훈련을 다녀왔고, 2월 동계체전을 앞두고 다시 강릉으로 떠날 예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지훈련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빙상장 예약은 관내 예약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다. 관내 학교팀, 실업팀이 우선이고, 타·사·도 팀은 후순위다.

“그래도 다행인 건 타·사·도와 달리 강릉실내빙상장은 온라인 예약이 아닙니다. 훈련 일정을 잡고자 부지런히 움직이면 미리 예약이 가능해요. 쉽지 않지만 이번에도 6개월 전에 잡아두었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지도자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다행히 해운대에 컬링장이 설립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컬링은 누구나 30분만 배우면 즐길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해운대에 컬링장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동호인 팀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컬링장 인근 초등학교에 컬링팀이 창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초·중·고·대학 연계 시스템이 갖춰질 거라 기대합니다. ‘제2의 평창올림픽 영미’가 부산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눈물로 기억되는 첫 메달, 그리고 성장

이규현 지도자에게 컬링부를 지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물었다.

“창단 후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첫 동메달을 땀 때입니다. 아이들이 경기장 내에서는 참고 있다가, 나와서 저한테 안기며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역시 10년 넘게 컬링 지도자로 활동하며 여러 메달을 경험했지만, 건국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안 나올 때 내심 걱정이 많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매 훈련마다 보이는 선수들의 성장이 대견하다.

“상대방 스톤을 쳐내는 테이크아웃 훈련을 할 때 우리 선수들이 성장했음을 느낍니다.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성과가 드러나니까 저는 물론 선수들도 스스로 뿌듯해하죠.”



우리 팀의 강점은 중학교 때부터 함께한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눈빛만 봐도 통하는 것처럼 다져진 끈끈한 팀워크죠.”

마지막으로 선수들에게 평소 강조하는 메시지를 물었다.

“플랜A만 생각하지 말고 플랜B, 플랜C도 미리 생각해 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컬링에서는 자기가 잘 던졌을 때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잘 못 던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예상과 벗어나는 건 인생도 그렇잖아요. 결국 다다음을 생각하게끔 하는 게 아이들이 사회에서 잘 살아가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건국고등학교 컬링부. 밤 10시, 다른 학생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에 그들은 얼음 위에서 내일을 준비한다. 빙판 위에서 스톤을 밀고 서로를 믿으며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 그 순간들이 이들에게는 이미 금메달이나 다름없다.



“머리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김지한 선수

팀 주장이자 스킵을 맡고 있는 김지한 선수는 중학교 2학년, 동아리 활동으로 처음 컬링을 접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았던 때였다. 직접 해보니 전략이 중요한 이 종목은 더욱 매력적이었다. 컬링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다. 스톤 하나를 보내는 데도 정확한 시간 계산이 필요하다.

“스톤이 하우스에 들어가기까지의 시간을 4초에 맞춰야 한다면, 그 시간이 안정화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해요.”

지금 김지한 선수가 가장 공들이고 있는 훈련은 투구 시 스톤에 가해지는 힘을 조절하는 웨이트 훈련, 즉 초 시간 맞추기다. 팀 전체적으로 웨이트가 불안한 편이라 더 집중하고 있다. 이윽고 그에게 플레이 스타일을 물었다.

“초반에는 방어적으로, 기회가 생기면 공격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작전을 지시하는 스킵답게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대답이었다. 김지한 선수는 주장인 만큼 본인 플레이뿐 아니라 팀 전체의 분위기까지 챙겨야 하므로 책임감을 느낄 때가 많다.

“아무래도 경기 내용이 제가 의도한 바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속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도자님과 팀원들이 주장인 저를 믿어줬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김지한 선수의 목표는 명확하다.

“스톤을 잘 던지기만 하는 선수가 아니라 팀을 승리로 이끄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다가오는 동계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더 높은 무대에서 통하는 스킵으로 성장하는 것. 19살 주장의 꿈은 단단했다.



“컬링은 끈끈한 팀워크가 중요한 종목이에요.” 김대현 선수

김대현 선수가 컬링을 처음 접한 것 역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였다. 그가 맡은 팀 내 역할은 두 번째로 스톤을 던지는 세컨드다. 이 역할은 상대의 스톤을 밀어내는 테이크아웃에 능숙한 선수가 맡는 경우가 많다. 김대현 선수에게 그의 플레이 철학을 물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소통’이라고 답했다.

“긴장하는 친구가 있으면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해요. 컬링은 소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 팀은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왔기 때문에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합니다.”

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그는 자연스럽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맡고 있다. 김대현 선수는 이규현 지도자, 강민준 감독, 그리고 동생들 이름을 차례로 불렀다. 김지한, 주민주, 박진우, 감동규, 박지성.

“3년 동안 열심히 지도해 주신 지도자님과 감독님,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데도 항상 편하게 대해주는 동생들한테 정말 고마워요.”

김대현 선수에게 이번 동계체육대회는 고등부로서 마지막 출전이다.

“2월에 있을 동계체육대회에서 후회 없이 경기하고 싶어요. 대학에 가서도 일반부로 들어가 부산을 대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같이 울고 웃었던 정든 팀원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게 가장 아쉬워요.”

앞으로의 꿈을 향해 가는 길 위에서도, 그는 여전히 빙판을 그리워할 것이라 대답했다.



2026년도 부산광역시 스키대회



부산시는 지난해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 5위에 오르며 18년 연속 종합 5위 및 6대 광역시 중 1위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 명실상부 동계 스포츠계의 강자임을 증명한 것이다. 또한 전국동계체육대회 출전 이래 역대 최대 메달 획득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 총 47개의 메달 중 무려 41개의 메달이 스키 종목에서 나왔다. 스키 종목에서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해마다 개최되는 부산광역시 스키대회가 있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부산광역시스키협회 주최·주관 ‘제34회 부산광역시장배 스키대회(알파인, 크로스컨트리)’, ‘제20회 부산광역시교육감배 스키대회(알파인, 크로스컨트리)’, ‘제40회 부산광역시스키협회장배 스키대회(알파인)’ 등 총 3개의 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에 앞서 2025년 12월 11일부터 2026년 1월 6일

까지 부산에 주소를 둔 초·중·고 학생 및 대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접수가 이루어졌다. 대회는 강원도 알펜시아리조트(알파인)와 알펜시아크로스컨트리센터(크로스컨트리)에서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었다. 1월 18일 오전에는 부산광역시장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크로스컨트리 경기가, 1월 19일에는 부산광역시장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배 알파인 1회전 경기와 부산광역시협회장배 알파인 1회전 및 2회전 경기가, 1월 20일에는 부산광역시장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배 알파인 2회전 경기가 펼쳐졌다. 수많은 사람의 관심과 참가 선수들의 열정 속에 치러진 부산광역시 스키대회는 스키 종목의 밝은 미래를 확인하며 마무리되었다.

제34회 부산광역시장배 스키대회

알파인									
순위	이름	소속	학년	기록	순위	이름	소속	학년	기록
남자 중년부					남자 초등 1부 (1~2학년)				
🥇	김동오	-	-	53.38	🥇	최재하	동성초등학교	2	1:05.34
					🥈	한주호	센텀초등학교	1	1:06.74
					🥉	최재훈	남성초등학교	2	1:07.22
남자 청년부					여자 초등 1부(1~2학년)				
🥇	김건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46.25	🥇	김하령	금빛초등학교	2	1:09.84
여자 청년부					여자 초등 2부(3~4학년)				
🥇	강영서	부산광역시체육회	-	48.09	🥇	이수호	부산교대부설초등학교	4	1:01.49
남자 대학부					여자 초등 2부(3~4학년)				
🥇	김동현	한국체육대학교	2	48.15	🥈	조윤성	해원초등학교	4	1:03.08
남자 고등부					여자 초등 2부(3~4학년)				
🥇	최재윤	동성고등학교	1	53.95	🥉	이로운	명륜초등학교	4	1:07.91
🥈	권윤	건국고등학교	1	1:00.05	여자 초등 3부(5~6학년)				
🥉	한예성	연제고등학교	3	1:15.28	🥇	조현서	동래초등학교	3	56.78
남자 대학부					여자 초등 3부(5~6학년)				
🥇	김기영	해운대중학교	3	49.14	🥈	손아림	해강초등학교	4	57.55
🥈	박우현	한바다중학교	1	50.52	🥉	이다인	동성초등학교	4	58.84
🥉	박지율	대전중학교	3	55.24	남자 초등 3부(5~6학년)				
여자 대학부					남자 초등 3부(5~6학년)				
🥇	조연서	명지중학교	2	56.44	🥇	조현준	동래초등학교	5	52.7
🥈	최서영	문현여자중학교	1	1:01.75	🥈	강건희	부산외국인학교	5	52.86
🥉	김지민	센텀중학교	1	1:07.47	🥉	이준모	동성초등학교	6	53.36
					여자 초등 3부(5~6학년)				
					🥇 정은율 온천초등학교 5 1:01.64				
					🥈 김세령 연신초등학교 6 1:10.61				
					🥉 이윤설 해원초등학교 5 1:20.20				

크로스컨트리									
순위	이름	소속	학년	기록	순위	이름	소속	학년	기록
남자 일반부					여자 중등부				
🥇	정종원	부산광역시체육회	-	3:05.03	🥇	김재이	신도중학교	2	5:02.05
🥈	한우석	부산광역시체육회	-	3:08.91	🥈	전아림	신도중학교	1	5:27.40
🥉	김영규	부산광역시체육회	-	3:19.22	남자 초등부				
여자 일반부					남자 초등부				
🥇	허부경	부산광역시스키협회	-	3:44.05	🥇	이하랑	광남초등학교	6	2:52.81
남자 고등부					남자 초등부				
🥇	전준상	대연고등학교	1	3:25.96	🥈	정이현	광남초등학교	4	4:26.96
남자 중등부					남자 초등부				
🥇	김성찬	신도중학교	2	3:23.26	🥉	김시현	용문초등학교	5	5:05.06
🥈	서승민	정관중학교	1	3:24.08	여자 초등부				
🥉	장우재	신도중학교	2	3:24.37	🥇	오신비	광남초등학교	6	2:49.09
					🥈 조슬기 광남초등학교 5 3:27.03				
					🥉 최지영 광남초등학교 6 3:27.98				

제20회 부산광역시교육감배 스키대회

알파인				
순위	이름	소속	학년	기록
남자 고등부				
🥇	최재윤	동성고등학교	1	55.37
🥈	권윤	건국고등학교	1	1:01.07
🥉	한예성	연제고등학교	3	1:18.77
남자 중학부				
🥇	김기영	해운대중학교	3	49.5
🥈	박우현	한바다중학교	1	50.81
🥉	박지울	대천중학교	3	54.86
여자 중학부				
🥇	조연서	명지중학교	2	57.22
🥈	최서영	문현여자중학교	1	1:01.7
🥉	김지민	센텀중학교	1	1:08.69
남자 초등 1부 (1~2학년)				
🥇	최재하	동성초등학교	2	1:06.72
🥈	한주호	센텀초등학교	1	1:07.69
🥉	김률희	남성초등학교	2	1:08.73
여자 초등 1부(1~2학년)				
🥇	김하령	금빛초등학교	2	1:11.42
🥈	손예림	해강초등학교	2	1:12.13
🥉	김시아	센텀초등학교	1	1:13.5

순위	이름	소속	학년	기록
남자 초등 2부(3~4학년)				
🥇	김민준	강동초등학교	3	1:00.58
🥈	이수호	부산교대부설초등학교	4	1:02.28
🥉	조윤성	해원초등학교	4	1:05.9
여자 초등 2부(3~4학년)				
🥇	조현서	동래초등학교	3	57.14
🥈	손아림	해강초등학교	4	58.63
🥉	이다인	동성초등학교	4	59.39
남자 초등 3부(5~6학년)				
🥇	조현준	동래초등학교	5	52.8
🥈	강건희	부산외국인학교	5	52.92
🥉	이준모	동성초등학교	6	53.32
여자 초등 3부(5~6학년)				
🥇	정은율	온천초등학교	5	1:01.2
🥈	김세령	연신초등학교	6	1:12.18
🥉	반하리	동성초등학교	6	1:21.47

크로스컨트리				
순위	이름	소속	학년	기록
남자 고등부				
🥇	전준상	대연고등학교	1	2:01.34
남자 중등부				
🥇	장우재	신도중학교	2	2:10.80
🥈	안진휘	신도중학교	2	2:11.39
🥉	서승민	정관중학교	1	2:11.78
여자 중등부				
🥇	전아림	신도중학교	1	3:00.62
🥈	김재이	신도중학교	2	3:10.00
남자 초등부				
🥇	이하랑	광남초등학교	6	2:51.99
🥈	정이현	광남초등학교	4	4:38.20
🥉	김시현	용문초등학교	5	4:55.46
여자 초등부				
🥇	오신비	광남초등학교	6	2:49.40
🥈	조슬기	광남초등학교	5	3:12.11
🥉	최지영	광남초등학교	6	3:38.27

제40회 부산광역시스키협회장배 스키대회

알파인				
순위	이름	소속	학년	기록
남자 중년부				
🥇	김동오	-	-	51.8
남자 청년부				
🥇	김건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46.11
여자 청년부				
🥇	강영서	부산광역시체육회	-	48.04
남자 대학부				
🥇	김동현	한국체육대학교	2	47.55
남자 고등부				
🥇	최재윤	동성고등학교	1	53.63
🥈	권윤	건국고등학교	1	59.65
🥉	한예성	연제고등학교	3	1:23.32
남자 중학부				
🥇	김기영	해운대중학교	3	49.42
🥈	박우현	한바다중학교	1	50.45
🥉	김지민	대천중학교	1	1:01.66
여자 중학부				
🥇	조연서	명지중학교	2	55.76
🥈	최서영	문현여자중학교	1	1:00.10
🥉	김지민	센텀중학교	1	1:06.77
남자 초등 1부 (1~2학년)				
🥇	이지호	광안초등학교	2	1:03.93
🥈	한주호	센텀초등학교	1	1:06.62
🥉	최재훈	남성초등학교	2	1:08.18

순위	이름	소속	학년	기록
여자 초등 1부(1~2학년)				
🥇	김하령	금빛초등학교	2	1:11.12
🥈	손예림	해강초등학교	2	1:11.69
🥉	김시아	센텀초등학교	1	1:17.84
남자 초등 2부(3~4학년)				
🥇	김민준	강동초등학교	3	57.04
🥈	이수호	부산교대부설초등학교	4	1:00.76
🥉	조윤성	해원초등학교	4	1:02.52
여자 초등 2부(3~4학년)				
🥇	한시은	동성초등학교	3	55.12
🥈	조현서	동래초등학교	3	57.49
🥉	손아림	해강초등학교	4	58.05
남자 초등 3부(5~6학년)				
🥇	강건희	부산외국인학교	5	52.31
🥈	조현준	동래초등학교	5	52.59
🥉	이윤우	센텀초등학교	5	52.65
여자 초등 3부(5~6학년)				
🥇	정은율	온천초등학교	5	59.23
🥈	김세령	연신초등학교	6	1:10.13
🥉	이윤설	해원초등학교	5	1:23.25



E-SPORTS



어릴 적 한 번쯤은 문방구에 있는 오락기 앞에서 열을 올린 적 있을 테다. 외계인을 쏘아 무찌르는 <갤러그>, 귀여운 공룡이 거품을 쏘는 <보글보글 (버블보블)> 등 우리의 추억 한편에는 게임이 있다. 어릴 때 우리를 설레게 했던 ‘게임’. 이제는 세계인이 열광하는 ‘e스포츠’로 다시 태어났다. 스포츠와 게임의 만남을 통해, 어린 시절 느꼈던 열정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전자 무대 위의 격전

게임의 또 다른 이름, e스포츠

게임이 스포츠가 되는 세상

사실 우리는 e스포츠가 낫설지 않을지도 모른다. 한국인이 라면 한 번쯤 열정을 불태웠던 <스타크래프트>를 떠올리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e스포츠란 게임을 매개로 사람 간에 승부를 겨루는 경기를 말한다. ‘게임’은 축구나 야구와 같은 스포츠의 ‘필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야구 경기를 진행하려면 경기장이 필요하듯, e스포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게임이란 ‘필드’가 필요한 것이다.

동시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도 한다. ‘e스포츠’는 과연 ‘스포츠’군에 속할 수 있는가? 대체로 ‘스포츠’라고 하면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을 떠올리는 반면 e스포츠라고 하면, 대부분 의자에 앉아 마우스만 움직이는 모습을 떠올린다.

그렇다면 ‘스포츠’가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을 테다. 스포츠란 ‘경쟁과 유희성을 가진 신체 운동 경기’를 총칭한다. 이러한 정의에 e스포츠는 얼마나 부합할까?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살펴보면, ‘경쟁성’과 ‘공정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경쟁성’은 스포츠의 ‘경쟁’과 동일할 것이다. 더하여 ‘게임’이란 ‘놀이’의 일부이기 때문에, ‘유희성’ 역시 갖추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체 운동 경기’일 것이다. e스포츠는 ‘스포츠’와 달리 신체 활동이라는 것이 전무하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스포츠가 신체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 경기 연맹 총연합회에서는 신체 활동이 없는 바둑과 체스 또한 스포츠의 일부로 인정했다. e스포츠라고 스포츠가 되지 못할 것은 없다.

물론 모든 게임이 ‘스포츠’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이야기한 ‘필드’와 동일한데, 모든 땅이 스포츠를 위한 필드가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가령 우리가 어린 시절 즐겼

0 SPORTS



던 <슈퍼마리오> 시리즈의 경우, ‘사람과 사람 간의 승부’를 겨룰 수 없기에 e스포츠가 될 수 없다. e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시점이 다각도여야 하며, 경쟁성, 규칙성, 신체적 움직임 및 탁월성 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왜 우리는 e스포츠에 열광하는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살펴보면, 상당히 다양한 종목이 ‘MZ’해졌음을 알 수 있다.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지는 스케이트보드, 서핑, 스포츠클라이밍 등 ‘젊은 스포츠’가 대거 유입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e스포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MZ들에게 e스포츠는 ‘놀이’이자 ‘스포츠’이다. 친구들과 함께 우정을 나누는 놀이로 인지되는 동시에, 상품이나 상금을 놓고 경기를 하는 스포츠의 형태를 함께 갖추고 있다. 이는 ‘창발론’적인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데, 창발론은 하나의 문화를 새로 탄생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여기서 핵심은 군중이다. 군중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할 때, 새로운 질서와 현상이 생겨난다. e스포츠 속 창발론은 2004년 ‘광안리 대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당시 스카이프롤리그 결승에 10만 관중이 참여하여 경기를 응원했다. 디지털 환경이 색다른 놀

이와 스포츠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인지의 확장도 이에 한몫했다. e스포츠의 특징은 가상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가상 세계로 진입하는 순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영역은 확대된다. 이는 동시에 상상의 확장이기도 하다. 상상은 욕망의 발현이자 재현이며, e스포츠가 무대 위에 오른다는 것은 젊은 세대의 욕구나 욕망이 공식 경기장에 채택되었다는 뜻이다. 문명은 인간의 상상력과 도구의 발명으로 발전되어 왔다. 즉, 상상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e스포츠에 열광하는 까닭은 e스포츠 자체가 인간의 본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e스포츠 더 깊게 즐기기

e스포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 이후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e스포츠가 추가됐다.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FC 온라인> 등 8개가 추가됐고 우리나라 선수단은 출전한 모든 종목에서 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었다. <FC온라인> 종목에는 곽준현이 동메달을, <스트리트 파이터 V> 종목에는 김관우 선수가 최고령으로 금메달을 땀다.

국내 인기 게임 중 하나인 <리그 오브 레전드>의 대표팀은 전승 우승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 덕에 다가올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 펼쳐질 e스포츠 경기에 대한 기대도 커진 상태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포켓몬 유나이티드>, 대전 격투(<스트리트 파이터>, <철권>, <킹 오브 파이터>) 등 총 11개의 종목이 선정됐다.

더 나아가 IOC위원회는 e스포츠의 올림픽화를 몇 번이고 고민해왔다. 그 끝에 국제 올림픽위원회 공인 e스포츠 세계 대회인 ‘올림픽 버추얼 시리즈’가 발표되었다. 이는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앞서 개최되었으며, 총 5가지의 종목이 선제적으로 공개되었다. 공개된 종목은 전통 종목(야구, 사이클, 요트, 조정)과 모터 스포츠(레이싱) 종목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임’보다 ‘버추얼’에 의의를 두었다.

버추얼에 의의를 둔 것은 <포트나이트>나 <리그 오브 레전드> 등 흔히 즐기는 게임의 ‘폭력성’이 거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게임이 폭력적인가’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고, 결국 2027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올림픽 e스포츠 게임즈를 개최하기로 밝혔다.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e스포츠의 세계는 넓고 다채롭다.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종목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리그가 운영되고 있거나 경쟁이 가능한 게임은 얼마든지 있다. 가령 귀여운 캐릭터가 등장하여 큰 인기를 끄는 <포켓몬스터>의 경우 매년 월드챔피언십을 운영 중이며, ‘크리스 프랫’이 광고를 맡아 한창 인기를 끌었던 <포트나이트> 또한 국제 대회가 있다.

만약 이 중 한 가지로 인해 e스포츠에 관심이 생긴다면, 한번 경험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e스포츠의 장점은 다른 스포츠보다 접근성이 낫다는 것에 있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설치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게임이 단순히 중독성 있는 오락으로 치부되던 시절은 끝났다. 이제는 함께 즐기고, 환호하고, 열광하는 하나의 ‘스포츠’가 되었다. e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축제의 장이 생겼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세계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며 컴퓨터 앞에 앉아보자. 과거에 열광했던 가상의 세계가 다시 한번 우리를 맞아줄 것이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e-스포츠 세부종목

- ▶ 리그 오브 레전드
- ▶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 ▶ 스트리트 파이터 6
- ▶ 포켓몬 유나이티드
- ▶ 모바일 레전드: 뱅뱅
- ▶ 나라카: 블레이드포인트
- ▶ 그란투리스모 7
- ▶ e풋볼 시리즈
- ▶ 부요부요 챔피언스
- ▶ 왕자영요
- ▶ 몽삼국

참고 자료

- 이상호, 「e스포츠 재미와 열광의 인지적 특성」, 『한국체육학회지』 제61권 제2호, 한국체육학회, 2022.02
- 이상호, 황옥철, 「e스포츠의 본질: 놀이, 게임, 스포츠와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59권 제1호, 한국체육학회, 2020.12.

“얼어 죽어도 러닝!” *일족러닝을 위한 생존 가이드* 겨울 러닝

찬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날에도 러닝화를 신고 밖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입김이 하얗게 퍼지는 곳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얼굴이 얼얼해지지만, 그럼에도 달린다. 이쯤 되면 겨울 러닝은 운동을 넘어 하나의 도전이다. 하지만 겨울 러닝은 의지만으로 버틸 수 없다. 몸은 추위를 경계하고 노면은 예상보다 미끄럽다. 준비 없이 나섰다가는 상쾌함보다 후회가 먼저 찾아온다. 겨울에도 오래, 재밌게 달리고 싶다면 몇 가지 원칙은 꼭 기억해 두자.

자료 출처: 웨더뉴스 공식블로그,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대구마라톤협회



몸을 깨우는 10분 루틴

겨울이 되면 몸은 이미 비상근무 상태에 놓여있다.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신체는 추위로부터 체온을 지키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근육은 자연스럽게 굳는다. 이때 충분한 준비운동 없이 바로 달리기를 시작하면 심장과 관절, 근육이 한꺼번에 놀라기 쉬워 부상의 위험이 크다. 그래서 겨울 러닝에는 준비운동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내에서 먼저 몸을 데우는 것이다.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거나 팔과 다리를 크게 움직여 체온을 올린다. 이어 발목을 천천히 안팎으로 돌리고, 무릎은 살짝 굽힌 상태에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움직여 관절을 풀어준다. 고관절과 허리는 상체를 좌우로 회전하거나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며 긴장을 해소한다. 끝으로 하체는 종아리와 허벅지를 중심으로 반동 없이 천천히 근육을 늘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몸은 비로소 ‘비상근무 모드’에서 ‘러닝 준비 상태’로 넘어간다.

겨울 러닝의 성패는 ‘나가기 전’에 결정된다

겨울 러닝은 집을 나서는 순간 이미 절반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러닝은 한결 수월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편해진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장이다. 겨울 러닝의 기본 복장 원칙은 단순하다. 두꺼운 옷 한 벌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다. 땀을 잘 배출하는 기능성 이너웨어 위에 가벼운 보온 상의를 입고, 그 위에 바람을 막아주는 아우터를 더한다. 장갑, 방한모, 넥워머 역시 체온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다. 이러한 준비는 추위를 막는 데서 그치지 않고, 러닝 중 몸의 컨디션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체온 관리만큼이나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수분 섭취다. 겨울에는 땀이 덜 난다고 느껴 수분 섭취의 필요성을 간과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호흡량이 늘어나면서 체내 수분이 계속 소모된다. 따라서 러닝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시고, 30분 이상 달릴 경우에는 중간에도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현명한 일족러너가 되자

러닝이 끝난 뒤의 관리 또한 중요하다. 운동을 마치면 가능한 한 빨리 실내로 이동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땀에 젖은 옷은 즉시 갈아입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만약 몸이 심하게 떨리거나 어지럽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는 저체온증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곧바로 운동을 멈추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겨울 러닝의 목표는 기록이 아니라 지속이다. 하루를 얼마나 잘 달렸는가보다, 겨울 내내 건강하게 달릴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에 노면 상태가 좋지 않거나 날씨가 지나치게 거친 날에는 과감히 쉬는 선택도 필요하다. 그런 날에는 실내 트랙이나 러닝머신을 활용해도 충분하다. 이는 러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방식을 바꾸는 일이다. 그렇게 겨울을 지나고 나면, 봄에는 이전보다 한 층 더 단단해진 몸과 마음으로 다시 달릴 수 있을 것이다.

겨울 러닝, 나가기 전에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 복장 레이어링은 제대로 했는가?
- 장갑, 방한모, 넥워머는 챙겼는가?
- 준비운동은 10분 이상 했는가?
- 수분 섭취를 위한 물은 챙겼는가?
- 노면 상태는 확인했는가?
- 러닝 후 갈아입을 옷은 준비했는가?

광역단체 최초 '체육국 신설' 생활체육 천국도시로의 약진 시작하는 부산



15분 생활권 내에서 시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도시. '생활체육 천국도시'를 꿈꾸는 부산의 스포츠 사랑은 빈말이 아니었다. 2025년 신설된 체육국은 2020년부터 외치기 시작한 구호를 현실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체육에 진심인 부산, 스포츠 도시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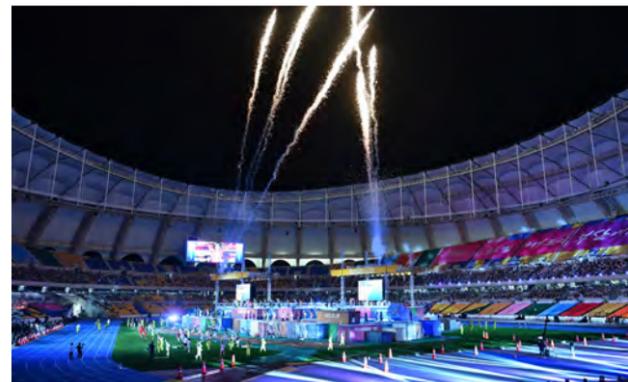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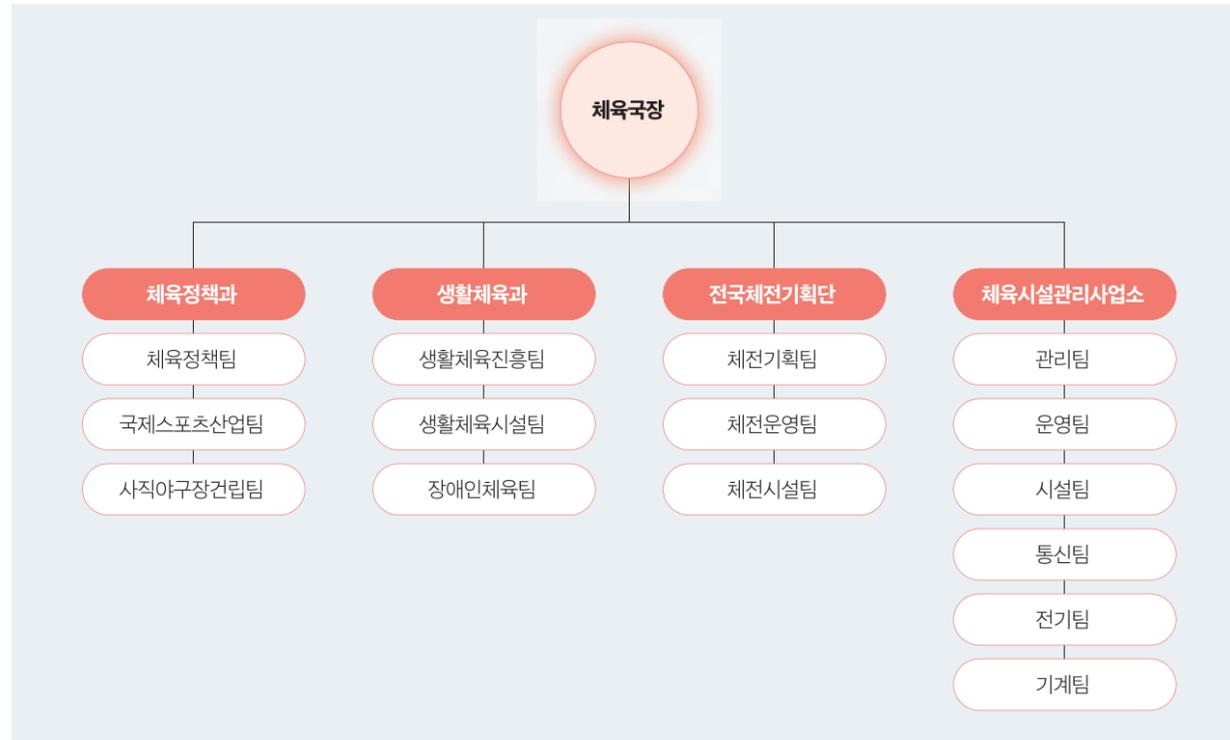
2020년, 부산시는 제4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열어 '생활체육 천국도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어디서나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누구나 향유하는 생활체육 일상화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행사 활성화 ▲차별 없이 누리는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 강화 ▲쉽고 편리한 통합플랫폼 구축이라는 5대 전략이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부산은 스포츠다'라는 슬로건 아래 부산시는 시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 스포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에 따른 민관의 노력이 이어졌고 덕분에 시민들이 부산에서 체육을 즐기는 비중이 증가했지만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를 전체적으로 총괄·컨트롤하는 구심점이 필요했다. 그리고 2025년, 마침내 부산은 광역단체로는 최초로 스포츠 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체육국을 신설했고, 시민 건강과 여가 증대, 스포츠를 통한 공동체 강화, 나아가 '스포츠 천국도시' 실현을 위한 행정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광역단체 최초! 부산광역시 체육국

2025년 3월 신설된 부산광역시 체육국은 체육정책과, 생활체육과, 전국체전기획단 3개 부서 9개 팀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구성되어 있다. 체육정책과는 체육정책팀, 국제스포츠산업팀, 사직야구장컨설팅팀을 두고 있으며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지원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지역체육 진흥 ▲전문체육 지원 ▲구·군 체육회 지원 ▲사직야구장 재건축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특히 대규모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고 운영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체육 천국도시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견고히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며 프로스포츠를 지역사회에 유치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생활체육과는 생활체육진흥팀, 생활체육시설팀, 장애인체육팀을 두고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이라는 슬로건을 실현하는 부서로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최근 유행에 힘입어 수요가 급증한 파크골프장을 비롯해 테니스장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에 걸맞은 접근성 향상도 도모한다. 이 외에도 생활체육 지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의 건강한 삶과 체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전국체전기획단은 2025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신설됐던 부서로 체전기획팀, 체전운영팀, 체전시설팀으로 구성되어있다. 체육대회 전반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조성, 운영, 홍보 등 실무를 전담한 부서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성료된 지금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시적 TF가 아닌 전담 부서로 구성된 덕분에 전국·국제단위의 대회를 치르며 운영 노하우와 경험을 체계화하여 대회 운영 역량이 날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발 더 다가온 '생활체육 천국도시'의 꿈

체육국의 신설로 2020년부터 부산시가 외쳐온 '스포츠 천국도시'라는 구호는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빨리 실현될 전망이다. 이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생활체육 인프라 및 체육 정책 강화 부문에서는 15분 체육도시를 구현하여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한 종합스포츠 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어



세별 특화 시설 마련을 위하여 노년층을 위한 파크골프장과 청장년층을 위한 테니스코트 추가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생활체육시설을 설치·개보수하고 틈새 공간을 확보해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공공체육시설 등을 연계하여 시민 대상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메이저 종목에 대한 수요가 만족된 시점에는 이색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오는 상반기에는 '리버오션 러너 스테이션'을 도시철도 2호선 민락역(리버)과 1호선 다대포역(오션) 두 곳에 조성하여 물품보관소,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제 스포츠 도시로의 위상 강화 부문에서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하고 전국 단위 대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성료하고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부산의 대규모 대회 및 행사 개최 역량이 뛰어남을 인정받았다. 이

를 계기로 향후 국제 대회를 개최하는 데에 큰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끝으로 ▲스포츠 산업 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인 육성 부문에서는 노후한 시설의 재건축과 프로스포츠 선수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사직야구장과 아시아드주경기장을 재건축해 문화와 체육이 접목된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프로스포츠 선수를 발굴, 육성,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펼친다. 숙소와 훈련장을 갖춘 부산형 종합선수촌을 조성해 엘리트 체육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스포츠 융복합 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민관의 공동 목표이자 포부가 담겨 있어, 그 추진 역량이 충분하고 앞으로를 기대하게 한다. 2025년 3월 신설, 개국 만 1년을 맞이할 체육국의 포부는 포부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고 있다. 2026년, 2027년의 부산체육계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성으로 증명한 부산체육, 시민과 함께 여는 2026 새로운 도약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2026 BUSAN SPORTS COUNCIL

2025년, 부산의 체육계는 그간 기울인 노력과 열의를 성과로 증명했다.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52년 만에 종합 2위를 달성했고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는 18년 연속 상위권에 자리하는 등 값진 결과를 얻었다. 이는 부산의 체육계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였다.

기록의 이면에는 선수와 지도자, 종목단체와 구급체육회, 그리고 생활체육을 즐기며 저변을 든든히 받쳐준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있었다. 학교 운동장에서 시작된 응원과 지지의 땀방울, 지역 실업팀에서 불을 당긴 도전, 생활체육 현장에서 활력이 쌓여 부산체육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 특히 2025년은 부산의 체육이 특정 지역, 특정 계층에 정체되지 않고 도시 전체로 확장된 해였다.

아울러 2025년의 성과는 체육행정과 체육현장의 유기적 협업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 부산광역시시는 전국 최초로 체육국을 신설하여 체육정책을 전문화하고 그 위상을 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현장 관계자는 체육국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선수와 관계자들이 그 실효성을 체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체육정책과, 생활체육과, 전국체전기획단 3개 과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이루어진 체육국은 부산시 체육 전반의 발전 방향과 정책을 기획 및 총괄하고 있다.

또한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전국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여 보다 수준 높은 대회 진행을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스포츠를 매개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행정의 뒷받침 위에 전문체육-학교체육-생활체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은 부산체육뿐만 아니라 전국의 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체육국 신설’이라는 과감한 판단이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26년,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투명경영-공정운영 ▲회원단체 역량강화 ▲실업팀 운영 고도화 ▲학교체육 경기력 기반다짐 ▲전국대회 경쟁력 강화 ▲생활체육 일상화 ▲생활-학교-전문 선수환 기반강화 ▲부산체육 브랜드파워 향상 등의 비전에 더해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소년체전은 단순한 대회가 아니라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갈 체육 꿈나무들의 기량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무대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대회의 안정적인 개최는 물론, 이를 계기로 학교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학생 선수들이 도전하고 새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년체전의 성패가 학교체육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교에서 시작된 스포츠 경험이 지역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는 경기력 향상뿐 아니라, 체육을 향유하는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일상과 공동체 가치를 학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모든 비전을 통해 2026년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시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자 한다. 생활체육과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일상에서 운동을 누리고, 스포츠가 특정한 공간이 아닌 도시 전역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체육을 통해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로 행복도시를 실현하고 행복한 체육 전국도시 조성에 앞장서고자 한다.

2025년의 성과는 부산체육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2026년,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전국소년체육대회와 학교체육, 지역체육의 발전을 통해 그 성과를 미래로 확장하고자 한다. 스포츠가 성장의 기회가 되고, 시민의 일상이 되는 부산. 그 도약의 길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길 것이다.



매끄러운 빙판 위, 거친 숨소리와 함께 스톤이 미끄러진다.
 “영미! 기다려!” 2018년 평창에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달궜던
 외침이 다시 귓가에 들려온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어떤 종목보다 치밀한 전략과 고도의 집중
 력을 요구하는 종목, 한국에서의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여느
 종목 못지않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컬링이다.

때론 과감하게, 때론 섬세하게 기량과 스포츠맨십을 겨루는 스포츠 컬링 Curling

컬링의 역사

컬링은 화강암 스톤이 얼음 위를 미끄러질 때 들리는 특유의
 소리 때문에 ‘Roarin Game’으로 불려왔다. 정확한 기원은 알
 려지지 않았지만, 세계에서 오래된 오락이자 스포츠임은 분명
 하다.

컬링과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라틴어 문서에 나타나있다.
 1540년 스코틀랜드 페이즐리의 공증인인 존 맥큐힌이 페이즐
 리 사원의 수도사 존 스클라터와 수도원장 개빈 해밀턴 사이의
 대결을 의전서에 기록한 것이다. 문서에 따르면 ‘스클라이터가
 빙판을 따라 세 차례 스톤을 던졌고 합의된 대결에 임할 준비
 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16세기 플랑드르 미술가
 인 피터 브루겔(1530~1569)의 그림에서도 컬링으로 추정되
 는 놀이가 묘사되어 있는데, 얼어붙은 연못 위에서 몇몇 사람
 들이 손잡이 달린 구체를 밀어 던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혹독한 북유럽의 겨울 동안 옛사람들이 얼음 위에서 돌
 을 이리저리 보내거나 주고받는 기본적인 오락 행위를 즐겼고
 그것이 지금의 컬링으로 발전했을 거라는 데에 큰 이의가 없다.
 현대 컬링은 빙질과 기온이 조정된 실내에서 치러지지만, 초기
 에는 주로 호수와 연못에서 행해졌다. 최초의 컬링 클럽은 스

코틀랜드에서 결성되었고 19세기를 지나오면서 전 세계 냉대
 기후 지역에 보급됐다. 그중에서도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 유럽 및 북미 국가에서 인기를 얻어 현재까지도 컬링 강국
 으로 자리 지키고 있다.

한국의 컬링

1980-1995

오스트리아의 컬링 선수이자 코치를 지냈던 Gunther
 Hummelt이 사업 파트너였던 김영철 고문(WCF 명예의전당)
 에게 한국에 컬링을 보급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1983년에 한
 국컬링클럽이 창립했으며 1987년에는 컬링 규정집과 교재 등
 을 한국어로 번역해 들여왔다. 1994년 1월, 대한컬링경기연맹
 이 창립하였고 그해 4월에는 세계컬링연맹(WCF) 정식 회원
 국이 되어 국제 스포츠계에 한국컬링을 알리게 되었다.

1996-2003

Gunther Hummelt이 1990년에서 2000년까지 국제컬링연
 맹(ICF) 회장을 역임하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
 로 진행됐다. 컬링 장비를 제공하고 WCF의 강사들을 파견해
 지도자와 심판교육을 실시, 짧은 기간에 컬링의 저변을 확대했
 다. 2001년에는 전주에서 아시아태평양컬링선수권대회를 성
 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여자대표팀은 이 대회에서 1위를 기록
 하며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2002 세계컬링선수권대회에 진출
 하였다.

2004-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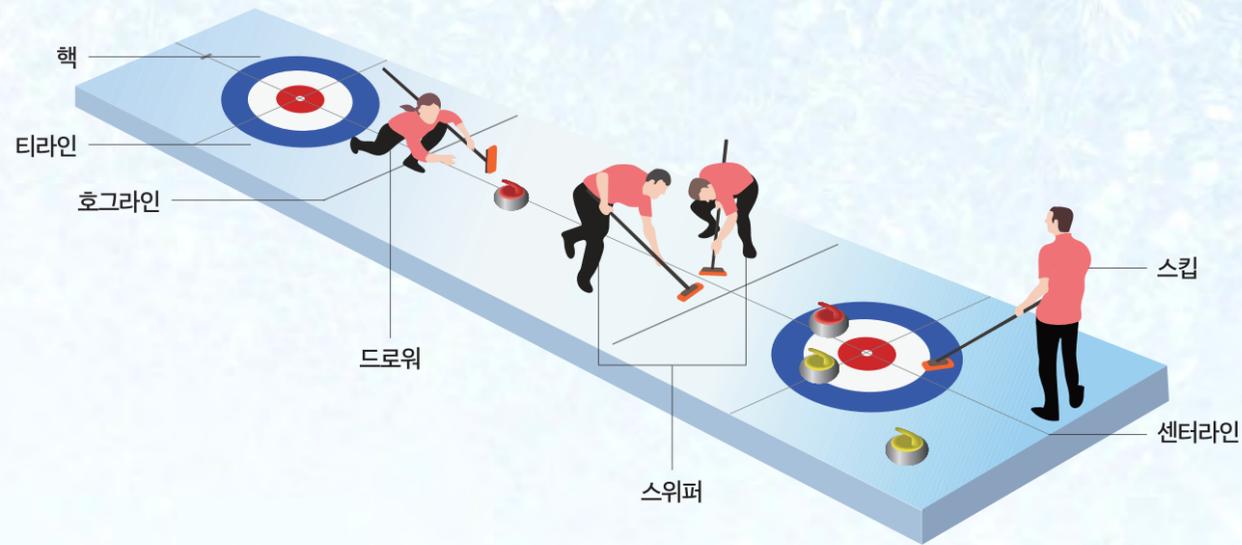
이후 전주에서 세계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2006)를, 강릉에
 서는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2009)를 개최했고 춘천과 의
 성에서 2004년과 2010년 아시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면서
 한국컬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는 여자대표팀이 처음으로 올림픽에 출전해
 8위라는 성적을 기록했다.

2017-현재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영미신드롬을 일으킨 여자대표팀
 이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한국 컬링은 대중적 인기를 구가했다.
 덕분에 현재는 강릉, 의성, 의정부, 청주, 인천, 진천, 태릉 등지
 에 컬링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생활체육으로써 컬링을 즐기
 는 동호인이 크게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우수 선
 수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컬링 시트(경기장)

컬링 경기가 치러지는 컬링 시트는 길이 45.72m, 너비 4.75m로 국제 규격 경기장은 6개 레인과 243석의 관람석을 갖춘다. 투구를 시작하는 선수는 호그라인을 넘기 전에 스톤에서 손을 떼야 한다.



경기방식

총 10엔드로 구성되고 한 엔드당 선수 한 명이 두 개의 스톤을 투구한다. 모든 투구를 마친 뒤, 하우스 버트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스톤을 위치시킨 팀이 승리하게 되며, 상대방 스톤보다 버트에 가까이 있는 스톤의 수만큼 점수를 획득한다.

선수의 포지션

- 리드: 첫 번째 투구를 하는 선수로, 침착함과 정교함이 요구된다.
- 세컨드: 스유프를 주로 담당하는 선수로, 강한 체력이 요구된다.
- 서드: 부주장으로 스킵과 스유퍼 사이의 의사소통을 담당한다.
- 스킵: 주로 주장이 맡는 포지션으로 스톤의 방향과 세기를 결정하는 등 작전을 지시한다.

컬링, 어디서 즐길 수 있나?

현재 부산에는 국제규격의 컬링장이 없다. 하지만 2020년 6월, 부산시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해운대구 좌동에 4개 레인 규모의 컬링장을 건설 중이다. 이르면 2027년 1월, '반다비 체육센터'가 개관하여 부산의 생활체육인들도 컬링을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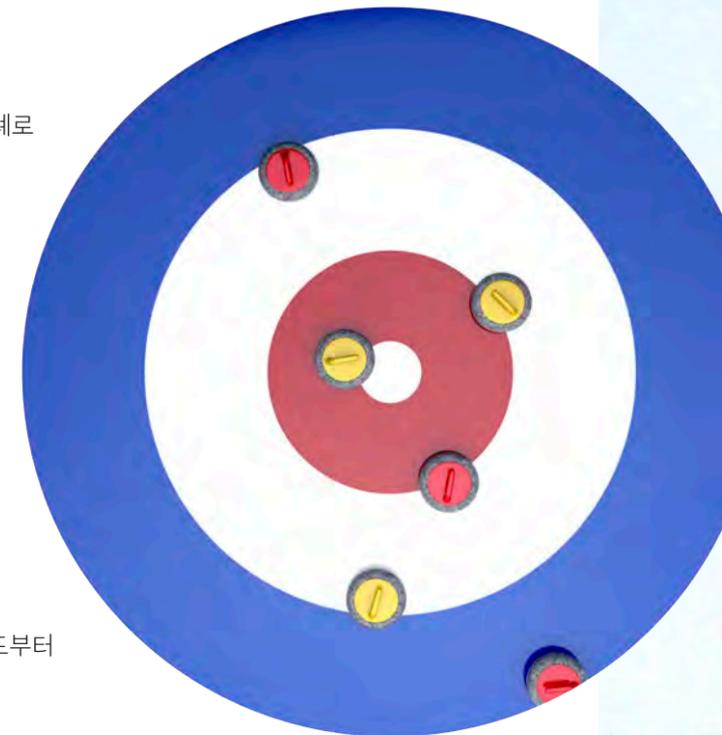
컬링 용어

- 스톤** 컬링 경기에서 사용하는 무게 20kg가량의 원형 돌
- 브룸** 빗자루 모양의 솔, 스유프용으로 스톤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데 쓰임
- 하우스** 스톤이 배치되는 표적의 원형 구역
- 버튼** 하우스의 가장 중심에 있는 작은 원
- 엔드** 한 팀이 8개의 스톤을 모두 던졌을 때 완료되는 경기의 단위
- 테이크아웃** 상대 팀의 스톤을 하우스 밖으로 밀어내는 샷
- 드로우** 다른 스톤을 맞지 않고 하우스 안쪽의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투구하는 기술
- 가드** 상대 팀이 우리 팀의 스톤을 치우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용도로 드로우 하는 행위, 혹은 그렇게 드로우 된 스톤
- 스유프** 스톤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브룸으로 얼음을 쓸어내는 동작
- 리드, 세컨드, 서드, 스킵** 1팀을 이루는 구성원 4명의 포지션
- 블랭크엔드** 양 팀 모두가 득점하지 못하는 상황
- 믹스더블** 혼성 2인조 팀, 그 팀이 겨루는 경기



컬링 규칙

- 팀은 4명의 선수로 구성된다.
- 각 선수는 엔드마다 상대 팀과 번갈아 두 개의 스톤을 차례로 투구한다.
- 참가팀은 스킵과 바이스 스킵의 포지션 그리고 투구 순서를 경기 시작 전에 제출해야 한다.
- 교체선수가 투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투구 순서 또는 포지션을 의도적으로 변경한 팀은 몰수패 처리된다.
- 만일 출전하기로 한 선수가 시합 시점에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등록된 후보 선수가 없는 경우, 팀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나머지 세 명의 선수만으로 경기를 시작하되 처음 두 명의 선수가 각 세 개의 스톤을 투구하고 세 번째 선수는 두 개의 스톤을 투구한다.
 - 나타나지 않았던 선수가 중간에 출석했다면, 다음 엔드부터 자신의 본래 포지션에 투입될 수 있다.



달릴 수 있는 힘은, 마음에서 나온다

영화 <독수리 에디>



우리는 최강을 동경하고 최약에 열광한다. 특히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골리앗보다 다윗의 분투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곤 한다. 이를 '언더독 효과'라고 한다. 이런 '언더독'들은 승패와 상관없이 도전하는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기에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이는 영화나 드라마로 자주 재해석되곤 하는데, 영화 <독수리 에디> 또한 그중 하나다. '스키 낙하 선수'라고 비웃음 받던 그가 영국의 영웅이 되기까지. 그의 '점프'를 쫓아가고자 한다.

노력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어렸을 때부터 올림픽 출전이 꿈이었던 에디. 문제는 스포츠에 소질이 없어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만류하기 바빴다. 에디는 굴하지 않고 스키 점프 선수가 되기로 하고, 천재 선수이자 코치인 브론슨(휴 잭맨)을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무모한 것 같으면서도 거침없는 도전을 하게 된다. 만화 <슬램덩크>의 명대사 중 하나인 "포기하는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예요". 에디가 부족한 실력에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던 까닭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에디의 모티프가 된 마이클 에드워즈는 10년 동안 올림픽 출전에 도전한다. 그동안 딱 한 번 올림픽에 출전하고 그 외에는 모두 탈락했다. 그는 10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경기는 계속되었고, 영국 사람들은 에디의 도전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근대 올림픽 창시자 피에르 드 쿠베르탱은 "올림픽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것이고, 삶에서 중요한 것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에디의 모습과 유사하다. 에디는 올림픽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참여했고, 정복하지 않았지만 잘 싸웠다. 어쩌면 우리가 언더독을 사랑하는 건, 포기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이 현실에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의 가치를 일깨워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에디의 코치 브론슨은 에디에게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충고한다. "보통 유소년 시절에 선수 준비를 한다", "네 나이에는 늦었다" 남의 시선 때문에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보인다. 그러나 에디는 아랑곳하지 않고 올림픽에 나간다. 에디의 목표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언더독은 어디에든 있다. 항상 꼴찌로 도착했지만, 매번 포기하지 않고 경주에 나간 일본 경주마 '하루 우라라'. 파리 올림픽에서 1점을 기록했지만, 끝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은 차드 출신 '이스라엘 마다예' 선수. 두 경우 모두 큰 성과를 내지 못했음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언더독들의 유쾌한 반란이 있기도 하다. 단 6명의 팀원으로 대한농구협회장기 준결승을 따낸 부산중앙고등학교 학생들, 약한 캐릭터로 e스포츠 세계대회 우승을 따낸 박세준 선수, 우승 후보인 포르투갈을 꺾고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우리나라 선수들까지.

우리는 항상 선택받은 이들만이 성과를 낸다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산다. 넘어지는 모습 또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에디는 말한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라고. 목표가 있다면 나아가라. 넘어지더라도, 한 걸음 나아갈 순 있을 테다.

BSC NEWS

2026년 부산광역시체육회 시무식 개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1월 2일(금) 체육회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부산광역시체육회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시무식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을 비롯하여 박가서 상임부회장, 신현기 사무처장, 원덕연 이사, 김지현 이사, 성기환 전문체육본부장, 장현찬 생활체육본부장, 이찬희 대외협력관, 김태우 실업팀 관리단장 등과 부산광역시 체육국 김완상 국장, 체육정책과 이오순 과장, 이병욱 팀장, 전국체전기획단 이정민 단장, 황나영 팀장, 생활체육과 김종식 팀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시무식은 장인화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새해 떡 절단식,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폐회 이후 참석자들은 다과 시간을 가지며 새해 인사를 나눴으며, 이와 더불어 부산체육의 미래를 위해 협력할 것을 다

짐했다.

장인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말띠는 활력과 에너지,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만큼 새해에는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새해 안부와 함께 “체육국 출범, 전국체육대회 25년 만에 종합 2위 달성, 동계체육대회 18년 연속 5위 달성, 전국소년체육대회 역대 최고 성적 달성, 체육활동 참여율 80% 돌파, 시군구 체육회 성과 평가 2위, 스포츠 영재 육성 사업 2년 연속 선정 등의 성과 덕분에 '자랑스러운 부산체육 더 자랑스럽게 BIG 5'를 선정하게 되어 기쁘다”는 말을 전했다. 또한, 이러한 성과는 모두의 피나는 노력 덕분에 이룰 수 있었으며, 올해도 출중한 능력으로 부산체육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BSC NEWS

부산광역시체육회 김운석 부회장, 부산산업대상 선정

제43회 부산산업대상 기술부문 수상 영예

2025년 11월 26일(수), '제43회 부산산업대상' 기술 부문에 부산광역시체육회 김운석 부회장이 선정되었다. 부산산업대상은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 지역 기업의 사기 진작 및 상공계 위상 제고를 위해 부산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유공 기업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것으로, 1983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가 후원한 이번 부산산업대상은 2025년 9월 15일(월)부터 10월 16일(목)까지 후보자 추천이 진행되었고, 심사를 거쳐 경영부문, 기술부문, 사회공헌부문 각 1명에게 시상이 이루어졌다. 시상자에게는 상패와 순금 메달이 주어졌다. 경영부문은 경영 성과 및 혁신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매출액 증가, 생산성 향상, 자본투자 및 신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 정보화, 공정거래 확립 및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한다. 기술부문은 기술 개발, 품질 관리, 공정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으로 산업기술의 혁신·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서, 기술 연구비 투자, 기술 인력·시설 보유, 산업재산권 보유 및

규격 인증 여부, 유사 기술 대비 신규성, 독창성 및 첨단성, 장래 시장규모 등을 평가한다. 사회공헌부문은 사회공헌의 4대 가치(나눔, 배려, 공유, 상생) 실천으로 부산을 위해 새로운 공헌가치를 창출한 자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준수, 기업의 이미지 및 사회인식 개선 활동, 나눔 및 기부 문화 확산, 지역사회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노력 등을 평가한다. 그리고 세 부문 모두 10년 이상 부산 지역에서 상공계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라는 공통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술부문을 수상한 (주)덕재건설 김운석 회장은 '기술이 곧 품질'이라는 신념으로 부산 건설산업의 수준을 높였을 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특허기술 개발, 특수공법 적극적 도입으로 초고층 건물 시공 역량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BIM(건축정보모델) 기반의 설계·시공 관리에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품질관리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며 10년 이상 산업재해율 '제로(Zero)'라는 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BSC NEWS

부산광역시골프협회 최광식 회장,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연임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제26대 회장 당선

1월 8일(목),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화물연합회) 최광식 회장이 화물연합회 회장을 연임하였다.

화물연합회는 1957년 설립된 국내 최대 화물운송사업자 단체로, 화물운송사업의 발전과 물류산업의 주축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또한 화물연합회에 소속된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 화물운송회사 등 약 1만 1,000여 개 회원사는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목표로 역량을 모으고 있다.

최광식 회장은 제25대 회장 재임 기간 당시 급변하는 물류 환경과 정책 속에서 국내 육상 화물운송산업의 산업적 위상 회복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화물운송사업 경쟁력 강화, 정부·국회와의 소통 확대, 불법·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 자정 활동 등을 통해 회원사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바 있다. 이러한 평가들이 그가 제26대 회장에 선출된 배경으로 꼽히며, 최광식 회장은 향후 3년간 이러한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다.

그는 화물연합회 중심의 플랫폼 구축, 지속적인 투자, 공격적이고 개방적인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물류 기술 고도화, 친환경 운송체계 도입 등을 통해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공제조합과 관련해서는 교통사고율 감소를 위한 안전 사업을 추진하고, 분담금 제도와 보상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화물운송산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광식 회장이 국회와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화물운송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이끌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최광식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화물운송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았지만, 18개 시도 협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국 화물운송사업자분들의 단합과 성원으로 버틸 수 있었다”는 소감과 함께 이번 제26대 임기 동안 화물운송산업을 단순한 운송업이 아닌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전략산업으로 재정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SC NEWS

부산광역시 체육국 인사 발령

5급 이상 6급 이하 인사 발령

5급 이상

임용 직위	성명	임용 직위	성명
체육국장	김안상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요트경기장관리)	조동훈
생활체육과장	정명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강서체육공원관리)	김동천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정민	생활체육과(생활체육시설)	배재원
체육정책과(체육정책)	이병욱	전국체전기획단(체전운영)	김경희
체육정책과(국제스포츠산업)	김경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	최성전
생활체육과(생활체육진흥)	김종식	체육시설관리사업소(기계)	김봉섭
전국체전기획단(체전기획)	황나영		

6급 이하

임용 사항	성명	임용 사항	성명
체육국	이호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어한수
체육국	김지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김대영
체육국	권보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박영진
체육국	이선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이창용
체육국	안동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김성한
체육국	송나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임선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김정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백상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박선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한상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박성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김효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조성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김환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박광덕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성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유석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주하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송철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노태오



중구체육회

2026년 중구체육회 현장 지도 계획 수립

중구체육회는 중구노인복지관 외 41개소에 방문하여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중구민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중구체육회는 구민에게 운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활동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구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구체육회

서구체육회 사무실 이전

서구체육회가 13년간의 '구덕운동장 시대'를 뒤로하고, 2026년 1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사무실 이전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 2025년 12월 말 이루어졌다. 2026년 서구체육회는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판매시설동에서 새 마음 새 뜻으로 희망차게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구민의 건강과 행복, 서구 체육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더욱 힘차게 될 계획이다.



동래구체육회

2026년 상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동래구체육회는 스포츠를 통해 구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자 '2026년 상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모집 중인 프로그램은 걷기, 근력운동, 배드민턴, 야외 라인댄스, 여성 풋살, 클라이밍 등 총 6개 종목, 10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시간대에 구성되어 보다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래구체육회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구민건강·구민행복·구민화합'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남구체육회

백세 헬스장 업무 협약식 진행

남구체육회는 1월 20일(화) 남구청 구청장실에서 남구청, 대한메포츠협회, 남구시설관리공단과 '백세 헬스장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부산광역시 남구, 남구체육회 등 4개 기관(단체)은 어르신 전용 헬스장 운영을 앞두고 맞춤형 장비 보급과 정기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어르신 운동 관리 훈련 및 헬스장 운동기구의 올바른 사용법 교육,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구군체육회 소식



영도구체육회

2025년 '송년회 및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

영도구체육회는 2025년 12월 9일(화) 목장원에서 2025년 '송년회 및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영도구체육회 임원, 위원회, 회원종목단체장 및 클럽회장, 사무장 등 3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등이 이루어졌다. 화합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부산진구체육회

2026년 상반기 1차 생활체육교실 운영

'2026년 상반기 1차 생활체육교실'이 구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운영을 시작했다. 부산진구체육회가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한 생활체육교실은 탁구, 필라테스, 바디펌프, 힐링요가, 건강댄스, 근력운동, 어르신튼튼체조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7개 종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모집 단계에서부터 문의와 신청이 폭주하였다. 부산진구체육회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해운대구체육회

제28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장 초청 유소년축구 스토브리그 개최

해운대구체육회는 1월 14일(수)부터 1월 18일(일)까지 5일간 장산구장, 해동초등학교에서 '제28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장 초청 유소년축구 스토브리그'를 개최하였다. 해운대구 유소년 축구팀을 비롯해 서울, 경기도 등 각 지역의 총 16개 팀을 초청하여 화합을 다지고 실력을 겨루었다. 경기 결과 양산유나이티드 풋볼스포츠클럽이 우승, 강릉 온리원FC가 준우승, 마산합성FC와 다산주니어FC가 공동 3위를 차지하였다.





사하구체육회

제35회 사하구 구청장배 클럽 대항 테니스대회 개최

사하구체육회는 2025년 12월 7일(일) 을숙도 테니스장 일원에서 '제35회 사하구 구청장배 클럽 대항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는 사하구 내 각 클럽 소속 선수와 동호인들이 대거 참가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대회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화합을 도모하였다. 사하구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대회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정구체육회

한물교 파크골프 연습장 개장식 개최

생활체육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금정구 한물교 파크골프 연습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월 14일(수) '한물교 파크골프 연습장 개장식'이 개최되었으며, 많은 내빈과 파크골프 동호인이 모여 시설 관람과 시타를 통해 한물교 파크골프 연습장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그동안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했던 파크골프 프로그램을 한물교 파크골프 연습장에서 진행하게 되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영구체육회

2026 수영구체육회 시무식 개최

수영구체육회는 1월 2일(금) 시무식을 개최하며 새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황대성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추진할 체육 사업의 방향을 공유하고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시무식은 수영구체육회의 힘찬 새 출발을 알리며 마무리되었다.



사상구체육회

2025 청소년체련교실 진행

1월 6일(화),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한 체력 증진과 도전 정신 함양을 위해 '2025 청소년체련교실' 프로그램이 기장스카이라인 루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체련교실은 일상에서 벗어나 몸을 움직이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루지와 짚라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안전교육을 받았으며, 루지와 짚라인 체험을 통해 집중력과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구군체육회 소식

B U S A N S P O R T S C O U N C I L



강서구체육회

2026 강서구체육회 정기이사회 개최

강서구체육회는 1월 28일(수) 강서구청에서 체육회 이사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이사회를 진행하였다. 정기이사회에서는 보고 사항(2025년도 추진 사업 및 세입·세출 결산서 외 3건) 및 의결 안건(2026년 추진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외 7건)을 원안대로 승인·의결하였으며, 기타 안건 토의가 진행되었다.



기장군체육회

2026 기장군 겨울 가족 스키 교실 개최

기장군체육회는 기장군민을 대상으로 한 '2026 기장군 겨울 가족 스키 교실'을 1월 26일(월)부터 27일(화)까지 이틀간 무주 스키장에서 개최하였다. 스키 교실 첫째 날에는 초급자와 중급자로 구분하여 스키 강습을 진행하였으며, 둘째 날은 강습을 토대로 참가자 각자가 자유롭게 스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스키 교실은 겨울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있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01 부산국민체육센터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성료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한 부산국민체육센터 겨울방학 프로그램이 61명의 학생들의 참여 속에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배드민턴과 농구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이번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추운 날씨 속에도 부산국민체육센터를 찾아 건강한 방학을 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아이를 따라온 학부모들은 부지런한 아이의 모습에 흐뭇한 표정을 숨길 수 없었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방학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학생들이 체력과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주말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02 강서구국민체육센터



강서구국민체육센터 직원 친절 교육 실시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1월 15일(목)에 2026년 상반기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전화 및 대면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 기본 교육을 비롯해 민원 대응 전략이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센터 이용 회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03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테니스 1차 선발전 개최

1월 27일(화)부터 30일(금)까지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에서 제 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테니스 1차 선발전이 개최되었다. 부산 거점스포츠클럽, 동천초, 동천초, 당평초 등에서 20여 명이 출전하여 부산 대표 선발을 위한 열띤 경쟁을 펼쳤다. 테니스장 운영 수익금은 부산 테니스 종목 및 전문체육 발전, 스포츠클럽 육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04 부산실내빙상장



북구어린이집연합 학부모 참여수업 진행

1월 29일(목), 북구어린이집연합(푸른초원어린이집, 푸른숲미래어린이집, 현대아이꿈터어린이집) 원생들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참여수업이 부산실내빙상장에서 열렸다. 80여 명의 원생과 학부모는 신나는 음악이 나오는 링크장을 맘껏 누비며 참여수업에 즐겁게 임했다. 부산실내빙상장은 유아빙상체능 교실이 평생체육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빙상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05 신평장림체육관



부산시 체육국장 방문, 체육관 운영 점검

지난 1월, 신평장림체육관에 부산시 체육국장이 방문하여 체육관 이용에 따른 불편 사항과 내부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체육관 내 안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신평장림체육관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선과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06 수탁체육시설 동정



강서구국민체육센터, 부산실내빙상장 센터장 공로패 전달

부산광역시체육회는 1월 9일(금) 수탁 운영 중인 강서구국민체육센터와 부산실내빙상장 센터장의 퇴직을 기념해 공로패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공로패 수여는 각 센터장이 재임기간 동안 보여준 헌신과 책임감 있는 운영, 그리고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꾸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앞으로도 수탁체육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일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스포츠로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체육 천국도시를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01

부산거점스포츠클럽



2025년 제1회 부산거점스포츠클럽 회장배 클럽교류대회 성료

2025년 12월 7일(일), '제1회 부산거점스포츠클럽회장배 클럽교류대회'가 사직운동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교류전은 부산 지역 거점스포츠클럽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테니스, 펜싱, 역도, 수영 종목에 350여 명의 선수와 75명의 심판 및 운영요원이 참가하였다. 특히 승패를 넘어 상호 존중과 교류에 중점을 둔 대회 운영을 통해 거점스포츠클럽의 공공적 역할과 가치가 재확인되는 계기가 됐다.

대회 기간 동안 참가 클럽들은 종목별 교류 경기를 통해 경기력 향상은 물론, 운영 노하우와 지도 경험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이는 지역 내 클럽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클럽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거점스포츠클럽 관계자는 "이번 회장배 교류전은 거점스포츠클럽이 단순한 체육활동 조직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공체육 플랫폼임을 보여주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산거점스포츠클럽은 향후에도 지역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한 교류 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 체육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02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수영전문선수반, 해외 전지훈련으로 동계 시즌 대비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수영전문선수반은 1월 10일(토)부터 21일(수)까지 베트남 푸꾸옥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팀 역량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전지훈련은 동계 시즌을 대비한 체력 강화와 기술 완성도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푸꾸옥은 연중 따뜻한 기후와 안정적인 훈련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선수들은 현지 수영시설을 활용해 수중 훈련과 체력 훈련을 병행하며 집중 훈련을 소화했다. 특히 개인별 컨디션과 과제에 맞춘 맞춤형 훈련을 통해 스타트, 턴, 페이스 조절 등 경기력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선수반 감독은 "국내 훈련을 넘어 새로운 환경에서 훈련하며 선수들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전지훈련의 성과가 향후 각종 대회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은 앞으로도 수영전문선수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부산체육 퀴즈

『부산체육』을 읽고 이벤트에 응모해 보세요.
이번 호에 실린 기사에서 퀴즈의 정답을 모두 찾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편의점 기프트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산체육을
더욱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1 세계인의 동계 스포츠 축제인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여기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키팀 소속 이의진 선수가 출전하였는데요. 이의진 선수의 출전 종목은 무엇일까요?
① 알파인 ② 프리스타일 ③ 크로스컨트리

2 부산은 남쪽 지역이라 따뜻한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부산의 건국고등학교는 동계 종목 중 하나인 이 종목의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영미 열풍'을 일으켰던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① 컬링 ② 바이애슬론 ③ 아이스하키

3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추가된 이 종목은 2022년에 우리나라가 전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개최되는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① 체스 ② 카바디 ③ e스포츠

『부산체육』
제86호
(부산체육 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② 아시아 2. ① 김태희 3. ③ 500
당첨자
이○옥(9149) 정○혜(7538) 허○열(6412) 박○이(0580) 박○기(7868)
박○순(3083) 최○윤(5591) 박○희(9141) 김○희(1976) 유○엘(9266)

퀴즈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힌트와 해당 기사를 참고하여 풀어보세요!



1 **힌트** 설상의 마라톤이라 불리는 ○○○○○○. 영하의 추위 속,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끝없는 오르막과 내리막을 달린다. 이토록 고독하고 치열한 길을 묵묵히 달려온,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속 이의진 선수는 지난 12월 극동컵에서 압도적 기량을 선보이며 올림픽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금빛 훈련일지> 9쪽

2 **힌트** 차가운 빙판 위에서 스톤이 미끄러지는 소리, “얌!” 하는 외침과 함께 빙판을 닦아내는 선수들의 모습. 동계 스포츠의 불모지로 여겨지던 부산에서 ○○이라는 새로운 씨앗이 싹트고 있다. 그 중심에 건국고등학교 ○○부가 있다.
<푸른 바다, 큰 꿈> 17쪽

3 **힌트** 전자 무대 위의 격전 게임의 또 다른 이름, ○○○○
<스포츠 & 테크놀로지> 25쪽

퀴즈의 정답을 모두 맞힌 분 중 10명을 추첨하여 편의점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응모 기간
2026.2.13.(금) ~ 2.28.(토)
응모 방법
네이버 플랫폼 양식 작성 후 제출
정답 및 당첨자 발표
『부산체육』 제88호 <부산체육 퀴즈> 게재 및 개별 연락



네이버 플랫폼 바로 가기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스카이하버 전망대



다이너 어드벤처



어린이왕자



어린이왕자 비행기



소원의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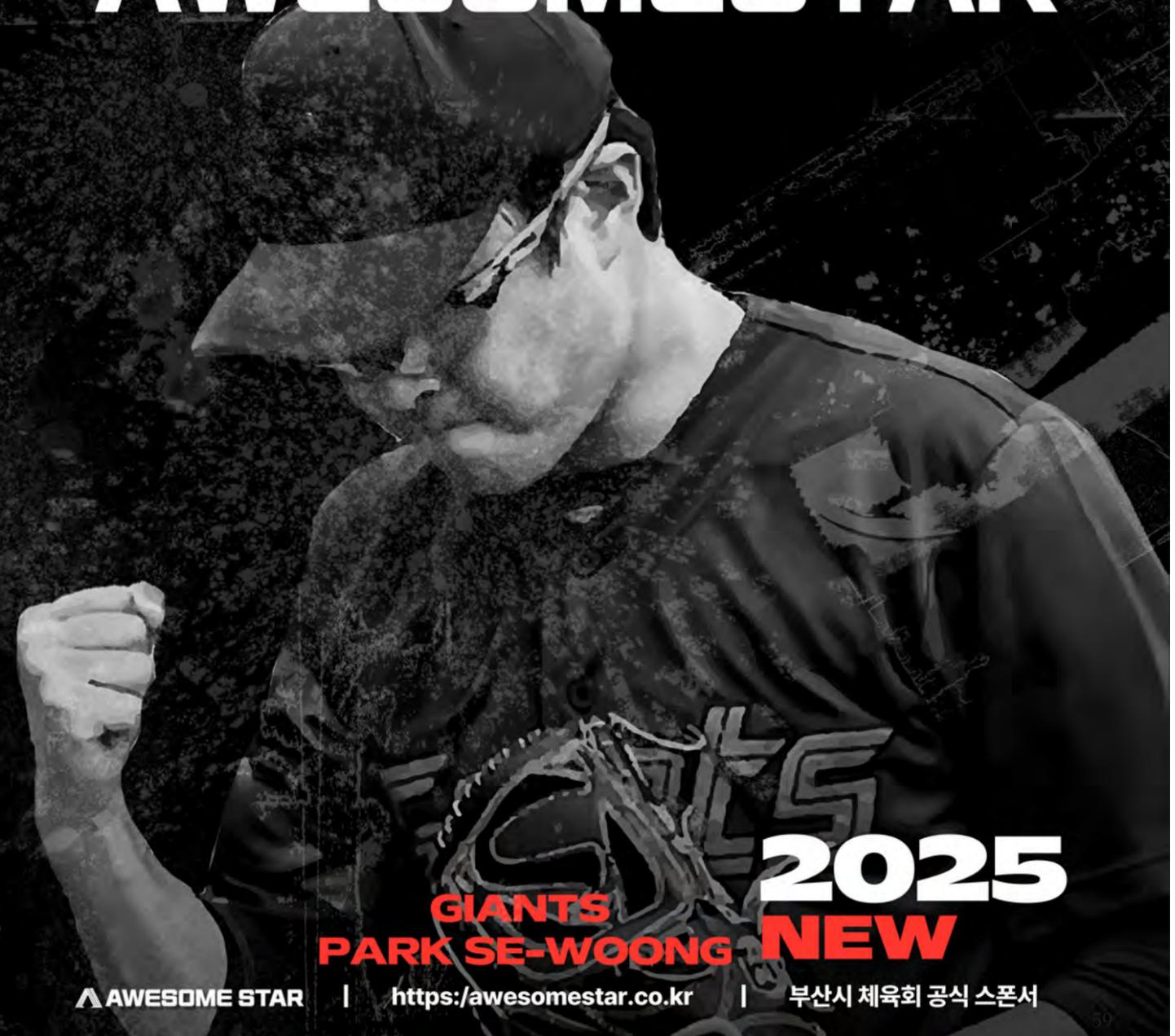
모멘트 캡슐

문의전화 051) 247-9900



프로들이 선택한 No.1 스포츠 브랜드 어썸스타

KEEP GOING AWESOMESTAR



GIANTS
PARK SE-WOONG
2025 NEW

AWESOME STAR

https://awesomestar.co.kr

부산시 체육회 공식 스폰서



walkon, 편안함을 넘어 회복으로

walkon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회복을 추구합니다.
수동적인 멈춤을 통해 회복하는 개념이 아닌, 능동적인 걸음을 통해
당신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걸음을 켜고(walkon) 건강을 신다



특허출원번호
제 10-2170264호

REUSHION



Heal Heel

충격에너지를 공간에서 소비하게
만들어, 종아리와 요추에 전달되는
충격을 20~25%가량 줄여줍니다

Toyole

발바닥의 용천혈을 자극하여, 운동
후 생기는 발의 피로와 붓기를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Reushion Project

Reushion Project를 통해 환경의
보호와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실현
합니다

After Sports

운동후 피로 회복 / 건강회복에 도움



구입처 <https://walk-on.co.kr/> 문의처 051-521-3442

바렐 전기 아연 아연니켈 합금 표면처리 전문업체

Electrical Barrel Zinc
Znic-Nickel Alloy Plating



DONG-A PLATING Co., Ltd.



동아플레이팅(주)
DONG A Plating Co., LTD.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14번가길 20
부산청정도금센터 101, 107, 108, 111호
전화 | 051-263-2170 팩스 | 051-972-2173
E-mail | donga1089@dongaplating.com

<http://www.dongaplating.com>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꿈을 향한 무한 질주 BNK가 응원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질주!
그 끝에 전율과 감동으로 하나되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스포츠,
BNK부산은행이 함께 합니다



| BNK부산은행 육상실업팀 최기만 선수 |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행복온도°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도시가스는 '함께'의 세상을 실현합니다.
사람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
부산도시가스가 행복온도(溫道)를 만들어갑니다.

부산도시가스 | SK 이노베이션
E&S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

- 행복도시락 (2007~)
- 사랑의 김치나눔한마당 (2011~)
-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독사 예방 (2020~)
-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협약 (2022~)

보편적 에너지복지를 위한 노력

- 에너지소외계층 안전점검 및 CO경보기 지원 (2007~)
- 복지시설 노후 가스기기교체지원 (2015~)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 착한에너지학교 (2011~)
- 행복한 에너지 동행 (2023~)